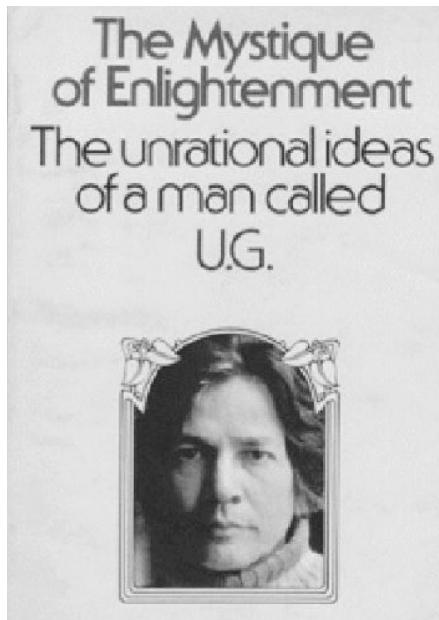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9부) U.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

| U.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비교를 멈추고 모른다는 마음으로, 미지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 할 때
새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9부)

Q :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문은 일어나지 않는가?

UG : 그런 일은 없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힘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구세주라거나 자유로운 사람, 혹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드는 것이 된다.

UG :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그를 전통으로 만드는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전통에서 빠져나오려는 욕구가 생겨난다. 그것이 전부다.

Q : 비베카난다가 라마크리슈나에게 그가 보았는지를 묻자, 라마크리슈나는 “그렇다, 나는 보았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UG : 그에게 직접 물어 보라. 나는 답할 수 없다. 나는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른다.

Q : 모든 개념은 어떤 틀 속에 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라마크리슈나는 그 틀 밖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상관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굳이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

UG : 나는 라마크리슈나가 뭐라 말했든, 상카라가 뭐라고 했든, 봇다가 무슨 말을 했든 관심이 없다.

Q : 당신은 그것을 모두 버렸다는 것인가?

UG :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 그것은 나의 시스템에서 저절로 사라졌다. 내가 그것을 버렸다거나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 내 전체 시스템에서 그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그 어떤 권위도 빌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이런 사람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 유산의 전체 기반을 밑바닥부터 흔들어놓기 때문이다.

Q : 당신은 일곱 개의 언덕과 7일 동안 있었던 일을 언급했는데...

UG :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중요치 않다. 신비한 현상일 뿐이다. 신비주의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친구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그들을 해탈시키려고 인도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피하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여기에 왔다. 그리고 여기 가 덜 비싸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부수적인 일이다. 정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강단에 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가? 나는 관심이 없다. 전할 메시지도 없다.

Q : 누구나 그 자연스러운 상태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는 않다는 말인가?

UG : 그것은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그 누구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천 퍼센트 확신해도 좋다. 내게만 그 상태가 특별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상태는 당신 안에 이미 있다. 그래서 인간 외부에는 어떤 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힘, 생명은 이미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문화가 그것을 억누르고 있다. 무언가가 스스로 드러나려 하는데 문화가 그것을 누르고 있다. 문화를 던져버리면 그것이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꽂피울 것이다.

Q : 이런 변형을 거친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라면?

UG : 그런 질문은 여기서 적절치 않다. 내가 나 자신을 성자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극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협회나 조직 같은 것에 소속되지 않는다. 장미, 수선화, 풀꽃에 공통점이 있는가?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아름다울 뿐이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이다.

Q : 독특함이 변형의 지표인가?

UG :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독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Q :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UG :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당신은 자신의 독특함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Q : 과학자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당신은 아인슈타인이 인류에 대단히 부당한 일을 했다고 말했는데.

UG : 그가 엄청난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원자탄 말이다.

Q : 그는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교환가능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UG : 그것이 원자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

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한다. 미국이 하지 않으면 독일이 할 것이다.” 그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Q :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두 개의 악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UG : 그렇지 않다. 두 개의 악 사이에서 더 적은 악을 선택해나가면 결국 악으로 끝날 뿐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내가 그를 제일의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프로이드가 20세기 최고의 사기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이지 전혀 근거 없는 이론들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20세기의 사기 협잡꾼이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오늘날 사람들의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모두가 그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도 이 사람들을 인류의 적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Q : 당신은 변형을 두고 ‘재앙’이라고 하는데.

UG : 사람들은 소위 깨달음, 자기 인식, 신성 인식 등등이 뭔가 황홀한 것이라고 상상하고, 지복의 상태에서 영원히 늘 행복하리라고 상상한다.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막상 일어나면, 그런 이미지가 정말 터무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지복, 영원한 무언가를 상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일어나는 일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영원한 무언가를 상

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재앙이다. 재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나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럴 것이다. “왜 현자들은 이것을 ‘영원한 지복’, ‘영원한 삶’ 등으로 말했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차피 내가 말하는 실제적인 것, 즉 자연스러운 상태와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달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내 관심 밖의 일이다.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Q : 당신이 한 말에 비춰보면 이런 질문이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UG : 누구에게 말인가?

Q :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모든 이에게.

UG : 아무 메시지도 없다. 인류에게 줄 메시지 같은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늘 그렇게 떠들어대냐”고 묻는다. 하지만 내가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이 굳이 여기 있는 이유는 대체 무언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이 ‘꽃’으로 장사를 할 마음이 없다... 핵심은 꽃의 향기다. 이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 숨을 수가 없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꽃의 향기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 꽃의 향기를 모른다.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비교를 하

는 것이다. “이것은 저 꽃과 같은 향기가 나네, 저 꽃과 비슷하게 생겼네.”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이게 전부다. 그러나 전혀 모른다는 마음으로그 꽃이 무엇인지, 그 향기가 어떤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다른 꽃이 존재하게 된다. 그 꽃의 복제품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미도 아니고, 수선화도 아니다. ‘수선화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시도 있지만. 아니면 장미... 장미가 왜 그리 중요해졌는가?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저기 있는 풀꽃이 장미보다 더 아름답다. 다른 꽃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저 꽃이 무엇인지, 그 향기는 어떨지 상상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새로운 꽃이 거기 존재한다. 주위에서 보아온 다른 모든 꽃들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꽃이.

Q : 감사드린다. 나는 한 시간 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UG : 감사하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제나 진리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